

35살의 승부사 목진석이 무려 15년 만에 우승 고지를 밟았다. 2015년 4월 2일 제20기 GS칼텍스배 결승4국에서 나이, 랭킹, 상대전적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최철한을 꺾고 종합전적 3-1로 감격의 우승컵을 안았다. 목진석의 우승은 단지 개인의 경사를 넘어선 프로기사 전체, 나아가 한국바둑계 전체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창호의 34살 우승을 뛰어넘은 목진석의 35살 우승이 더욱 값진 이유는 이미 정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됐던 중견기사가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실패 끝에 장강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15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데 있다. 그의 우승은 승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우승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35살 승부사 목진석, 한 번도 승부 포기한 적 없어

목진석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인상들이 있다. '반듯함' '모범적' '팔방미인' 등.

아직 풋풋한 청년 같은 목진석은 올해로 결혼 5년차인 남편이자 아빠다. 가족을 동반한 그의 모습을 기원 근처에서 종종 보곤 한다. 처절한 승부사보다 가정적인 가장의 콘셉트가 더 어울릴 법한 그에게 가족 동반 촬영을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했다.

4월 8일 한국기원에서 아내 김민정 씨, 네 살배기 아들 목은찬 군과 동행한 목진석 九단을 만나 근처의 서울숲으로 향했다.

서울숲에 도착하자 김민정 씨가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바로 은찬 군이 탈 자전거. 당연히 네발 자전거를 예상했는데 두발 자전거다. 네 살 은찬 군이 과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보아하니 페달이 없다.

페달이 빠진 두발 자전거라니, 영락없이 앙꼬 빠진 찌빵 같은데 아이들에게 인기 상품이란다. 페달 대신 발을 사용해 굴리면서 균형 감각을 연습하다 보면 곧바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전거의 핵심인 페달을 과감히 없앤 그 발상이 참 기발하다.

6~7년 만에 방문한 서울숲은 예전에 느꼈던 숲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공원처럼 바뀌었다. 금요일 오후인데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다.

커버스토리 촬영을 앞두고 목九단이 두 가지



걱정을 했다. '표지로 나갈 얼굴이 너무 피곤해보인 것' 한가지와 '아들 은찬이가 잘 협조해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

목九단은 전날 '미생의 날' 행사가 열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방문했다가 새벽 1시 경에야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잠들지 않은 은찬 군과 놀아주느라 잠을 설쳤다고 한다. 오늘 아침 일찍 잡혀있던 인터뷰까지 소화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목九단의 촬영이 진행되는 사이 김민정 씨에게 살짝 물었다.

"목사범은 아주 가정적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앞서 목사범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부인한테 물어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김민정 씨는 대답을 망설인다. 시간에 쫓기고 항상 승부의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승부사에게

보통 남자들의 '가정적' 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까. 연애 당시 목九단의 '뒤편이' 에 반했다는 김민정 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건 없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목九단의 우려대로 네 살배기 은찬 군을 촬영하는 것은 만만찮았다. 평소에도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은찬 군은 엄마가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것조차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젓곤 했다.

이시용 사진기자가 은찬 군의 시선을 카메라에 고정시키기 위해 벌레 먹는 흉내까지 열심히 내가며 악전고투한 끝에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나니 딱 저녁 시간이다.

함께 한국기원 근처의 유명한 메밀집으로 향했다. 목九단은 이어진 우승턱으로 고기에 질렸는지 고기 아닌 무언가를 먹고 싶어 했는데, 메밀집은 평소에도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고 한다.

내내 페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쫓아다니느라 에너지가 바닥났는지 식당에 도착할 무렵 은찬

군은 이미 풀아떨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목九단과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2000년 KBS바둑왕전 우승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일궜는데, 그동안 우승에 대한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었나?

한번도 승부를 포기해본 적은 없었지만 준우승만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우승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9연패를 당하면서는 오직 한판 이기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GS칼텍스배 첫판을 이기면서 연패의 고리를 끊었다는 의미가 컸다. 이후 부담을 떨치고 잡념 없이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 는 말이 있다. 첫 우승 이후 8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우승과 준우승의 경계는 무엇이라 보는지.

첫째는 기량의 문제겠지만 준우승이 이어지자 "아, 내가 정말 이 벽을 못 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일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이 커졌다.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우승을 확정짓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팬들이 가슴 찡해 했는데 특히 부인의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다. 뭐라던가?

하하. 부모님이나 친정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려했다는데 아내는 순간 "어떡해. 우는 거야?"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단다.(김민정 씨는 준결승 때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잔 남편을 배려해 결승전을 앞두고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피신(?)을 가 있었다단다. 우승 인터뷰 하는 남편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놀라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을 뿐 자신도 이내 찡해졌다고 해명한다.)





9연패라는 긴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와 35세 우승의 저력을 보여준 목진석 九단.

오랫동안 큰 기복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라도 있나?

어릴 적부터 목표 중의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레벨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바둑은 나이의 상관없이 평생 공부라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경쟁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스스로 강해지고 자신감이 있다면 승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다.

전투적인 기풍으로 유명하다. 예전과 기풍적인 측면에서 변한 부분이 있는지.(이세돌 九단은 목九단의 꾸준한 성적의 요인 중 하나로 탄탄하고 두터운 기풍을 언급했다.)

전투적인 기풍은 여전하지만 예전에 비해 사고나 전체를 보는 눈 등이 유연해졌다. 무턱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두다가 상황이 조성되면 싸우는 식이다. 예전의 무리하고 저돌적인 면은 많이 사라졌다.

‘괴동’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들었다. 어떤 의미인지?

‘괴이한 아이’라는 의미로 인터넷바둑사이트 아이디로 사용했었다. 특이하고 독창적인 바둑을 두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바둑계의 팔방미인으로도 유명하다. 바둑에 방해되는 면은 없었나?

중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20대 때는 음반을 낸 적도 있다. 당시 왕성한 호기심으로 바둑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넓게 보면 그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삶을 다채롭고 운택하게 해준 것 같다. 지금은 체력 관리 겸 테니스를 하는 정도이고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버지인 목이균 씨는 유명한 금융투자가이자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투자에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

투자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추천한 종목을 산 경우에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 쪽으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다.

나중에 은찬 군이 원한다면 프로기사를 시킬 의향도 있나?

내가 바둑을 배우던 당시 어느 시점이 되자 아버지는 내게 선택권을 주셨다. 나는 바둑을 선택했고 그것을 한번도 후회해본적은 없다. 은찬이도 본인이 원한다면 스스로 선택하게 할 것 같다.

후배기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 기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프로기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에 걸맞은 품위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글/이세나 편집장, 사진/이시용 기자〉